



5월 24일



애굽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강물에 버려라!"

요게벳의 집에도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요게벳은 아기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보호해 주세요."

요게벳은 갈대 사이에 아기를 담은 상자를 놓았어요.

강가 저편에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공주는 갈대 사이에 놓여 있는 상자를 보았어요.

"상자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공주는 상자 안을 들여다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불쌍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로구나.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공주는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백성을 때리다니.....'
모세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잇!"
화가 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모세는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사십 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호렙 산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 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라."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보호해 주셨답니다.



생각하는 아이

가까이하면 쓱쓱 자라요

남우가 소망이를 살펴보았는데 창문 쪽으로 잎사귀들이
햇빛을 향해 있었어요. 남우는 궁금했어요.

"엄마, 이쪽에 잎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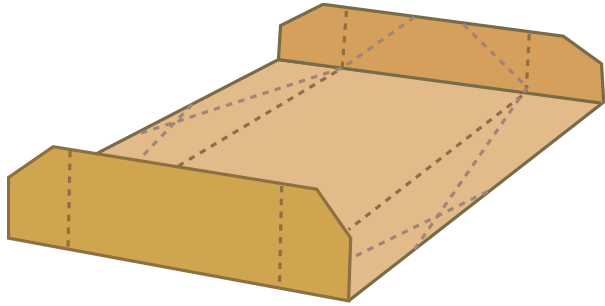


"남우가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구나. 나무는 햇빛을 아주 좋아해서 밝은 쪽으로 더 많이 자란다. 우리도 배가 고프면 식탁 앞으로 모여서 밥을 먹지?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그럼, 우리 남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더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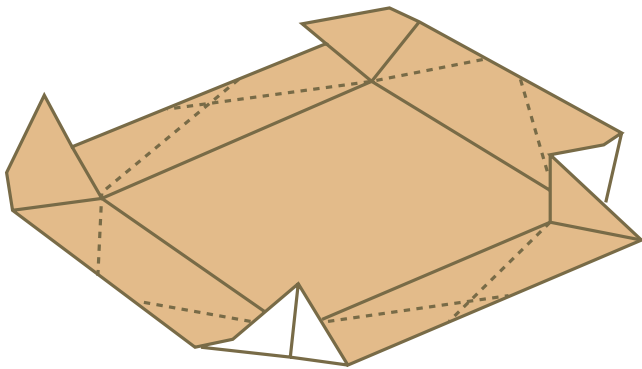


"바구니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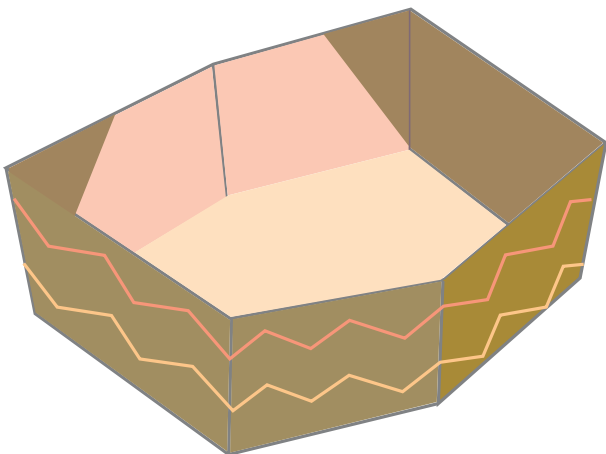
● 자르는 선 _____ ● 접는 선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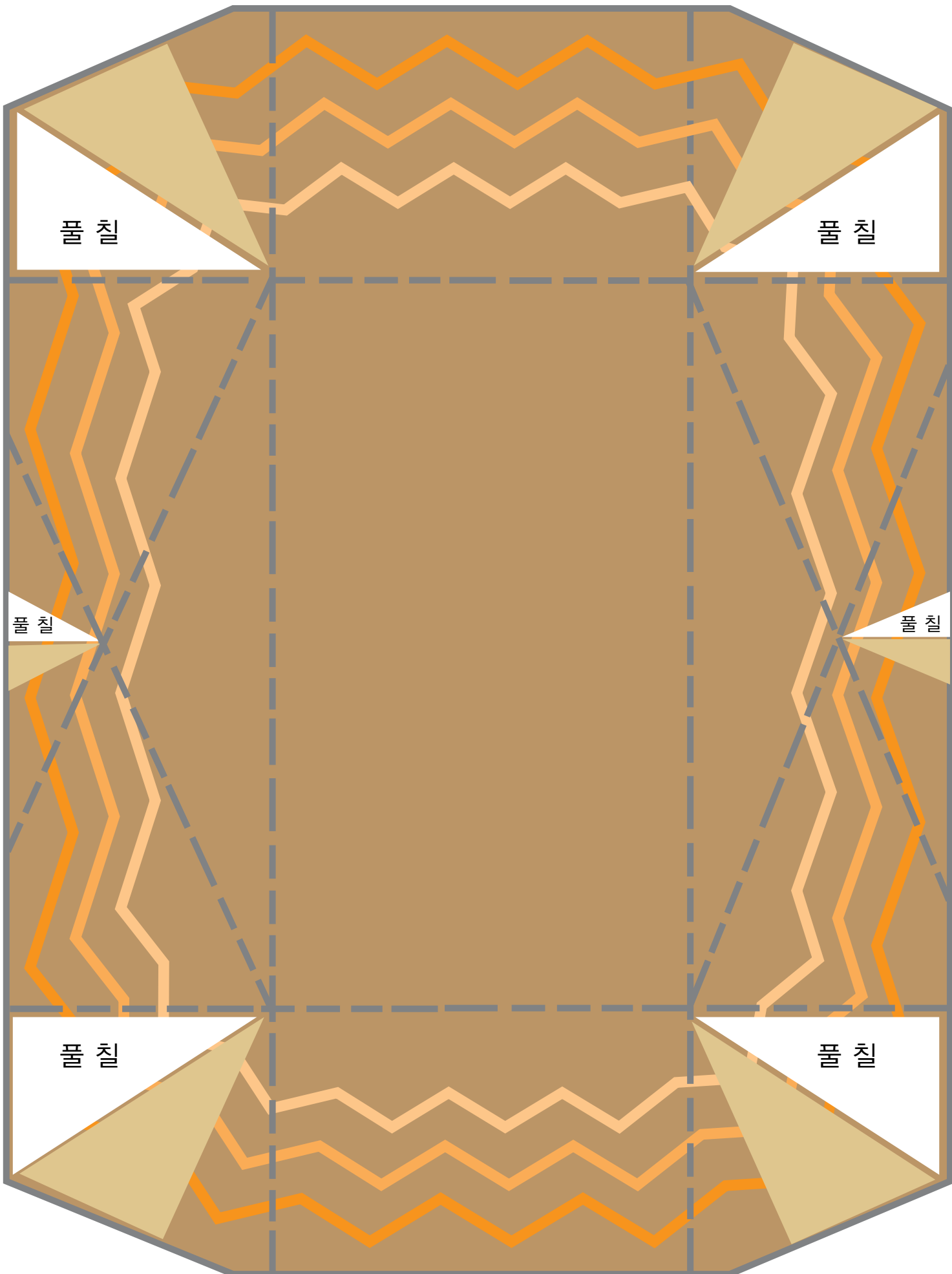
① 69쪽 그림을 오리세요.



② 점선을 모두 접었다 펴면
만들기가 편합니다.



③ 모서리 부분에 풀칠을 한
후 맞붙이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출애굽기 2장 10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